

보도시점 2024. 7. 5.(금) 14:30 배포 2024. 7. 5.(금)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늘린다... 먹는물·음료 업계와 협약

- 먹는물·음료 페트병에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음료 업계*,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7월 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스파클(주), 동아오츠카(주), 산수음료(주),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이후 먹는물·음료 7개사는 국내에서 배출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펠릿)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용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용기에 대한 검사(한국환경공단 수행)를 통해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혼합 수거된 무색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재생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먹는물과 음료에 주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된 무색 페트병은 분리배출 → 파쇄 → 용융 과정 등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탄생한 후, 다시 페트병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2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제정하여 무색페트병으로 제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재 식품용기(페트병) 생산에 부여된 3%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품목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참여기관 현황.
2. 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44-201-738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참여기관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사용비율	출시(예정)일	제품예시	비고
1	코카콜라음료(주)	코카콜라 (1.25L)	10%	'23.5월		음료
2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 ECO (1.5L)	10%	'23.3월		먹는 샘물
		칠성사이다 ECO (무라벨, 0.3L)		'24.12월		음료
3	동아오츠카(주)	마신다샘물 (0.5L)	10%	'24.10월		먹는 샘물
		나랑드 사이다 (0.5L)				음료
4	스파클(주)	스파클 (0.33L)	10%	'24.9월		먹는 샘물
5	산수음료(주)	re 가벼운샘물 (0.5L)	10%	'24.9월		먹는 샘물
6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 그린라벨 (1L)	10%	'24.6월		우유
		서울우유 유기농우유 (0.7L)				
7	매일유업(주)	유기농우유(저지방) (0.75L)	10%	'23.11월		우유 (2종)
		무항생제 인증 (저지방) 우유 (0.75L)				우유 (2종)
		유기농 드링킹요거트 (0.75L)				발효유
8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병입 수돗물	100%	'24.5월		수돗물
9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병입 수돗물	30%	'24.6월		수돗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 협약서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사용 후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생산하여 폐플라스틱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에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부, 무색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무색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아리수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선도 기관으로서 사용경험과 사례공유 전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협약에 참여하는 최종 제품생산자는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1.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된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환경부는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확대 및 목표율 상향 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협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4. 7. 5.

롯데칠성음료(주)

스파클(주)

대표이사 (서명)

대표이사 (서명)

동아오츠카(주)

산수음료(주)

대표이사 (서명)

대표이사 (서명)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주)

상임이사 (서명)

대표이사 (서명)

코카콜라음료(주)

서울아리수본부

대표이사 (서명)

본부장 (서명)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 장 (서명)

이사장 (서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명)

이사장 (서명)

환경부

장 관 (서명)